

4월 유럽수요 19개월만에 YoY 증가했지만 일시적일 것

Analyst 이명훈

02) 3787-2639
mhlee@hmcib.com

Jr. Analyst 김형욱

02) 3787-2620
kimhu@hmcib.com

- 4월 유럽시장(EU27+EFTA) 승용차수요(등록기준) 1.8% YoY 증가, 1~4월 누적 7.0% 감소
- 19개월만에 YoY 증가했지만 부활절 연휴(작년은 4월, 올 해는 3월)로 조업일수가 2일 내외 증가했기 때문
⇒ 3~4월 합산으로는 5.2% YoY 감소해 1~2월 합산 9.3%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
- 주요 5개국 중 1~4월 누적 증가한 곳은 영국(+8.9% YoY) 뿐, 높은 인센티브, 낮은 금리, 중고차 부족 영향
- 현대차 1.8%, 기아차 6.4% 증가하며 합산 점유율 6.2%(vs 전월 6.1%, 전년동월 6.0%)로 상승
- 현대차는 i20와 i30의 신차효과 점차 소멸 중, 기아차는 Carens 후속 판매 본격화
- 4분기 현대차 Tucson facelift, 기아차 Sportage facelift 출시로 신차 모델템 이어갈 전망

4월 유럽수요 YoY 증가했지만 영업일수 증가 영향, 큰 의미 두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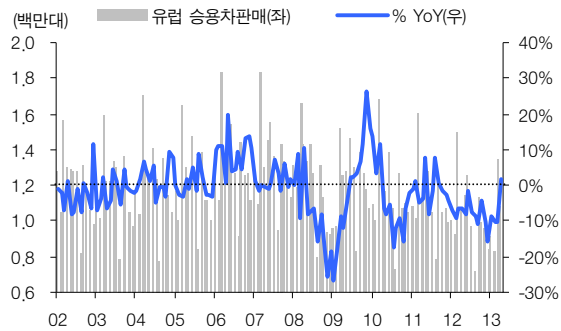
4월 유럽 자동차시장 수요(EU27+EFTA, Passenger Car 등록대수 기준)는 108.1만대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유럽수요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19개월만이지만 4월 영업일수가 작년 대비 2일 내외 증가한 영향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부활절 연휴가 작년엔 4월에 있었고 올 해엔 3월에 있었기 때문에 4월 영업일수가 증가했다. 3~4월 합산으로 5.2% 감소해 1~2월 합산 9.3%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다. 유럽 주요 5개국 중에서 1~4월 누적기준으로 증가한 국가는 영국(+8.9% YoY) 뿐인데 높은 인센티브, 낮은 금리, 중고차 부족 등의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주요 업체별로 4월 유럽판매 증가율을 살펴보면 Daimler(+11.0%), VW(+9.7%), Nissan(+6.7%), 기아차(+6.4%) 등이 선전했고 PSA(-10.0%), Fiat(-9.8%), GM(-4.1%) 등이 부진을 지속했다.

현대기아차의 신차모델템은 Carens 후속에 이어 4분기 SUV로 이어질 전망

현대차의 4월 유럽판매는 36,572대(+1.8% YoY), 기아차는 30,036대(+6.4% YoY)를 기록하며 견고한 판매추이를 지속했으며 재고 역시 현대차 2.2개월분, 기아차 2.4개월분으로 적정 재고를 하회하고 있다. 점유율은 현대차 3.4%, 기아차 2.8%, 양사 합산 6.2%(vs 전월 6.1%, 전년동월 6.0%)로 소폭 상승했다. 현대차는 i40(2011년 3분기 출시), i30 후속(2012년 1분기 출시), i20 facelift(2012년 2분기 출시) 등 핵심모델의 신차효과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지만 산업수요 부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선방하고 있으며 올 4분기에는 Tucson facelift 출시가 예상된다. 기아차도 2011년에 출시된 Morning과 Pride 후속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cee'd 후속과 Sportage 판매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으며 4월에는 Carens 후속의 판매도 본격화됐다. 4월 Carens 유럽판매는 1,740대인데 Carens의 과거 연간 판매대수('10년 3,117대, '11년 1,759대, '12년 477대)에 비해 탁월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유럽판매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올 4분기 Sportage facelift를 출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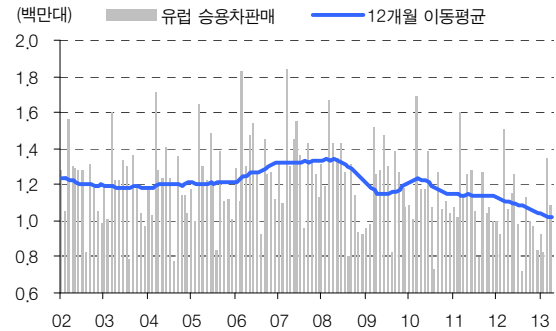
현대기아차는 지속적으로 신차를 투입하는 동시에 판매가 부진한 브랜드에서 이탈한 경쟁력있는 딜러들을 영입하며 딜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시장에서의 장기적인 판매기반 강화와 브랜드 향상 등 구조적인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1〉 유럽 승용차판매(등록) vs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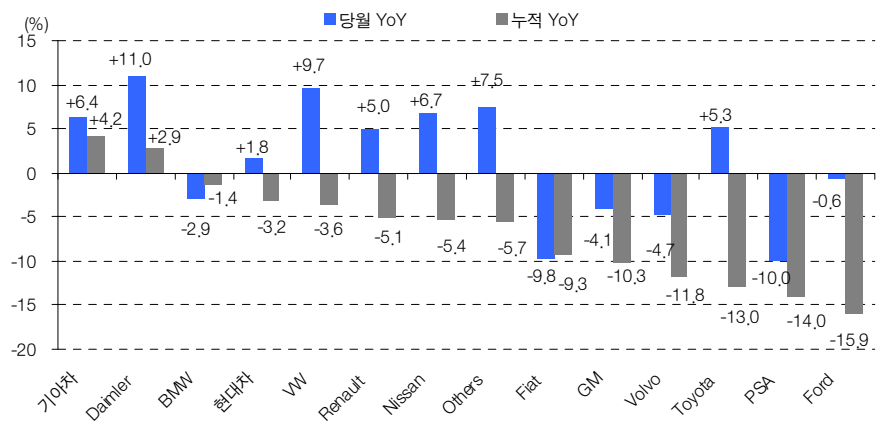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2〉 유럽 월별 승용차판매(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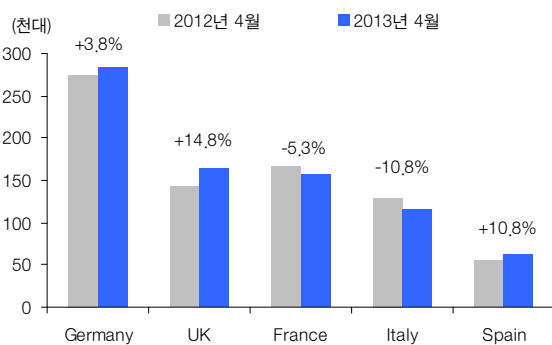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3〉 유럽 승용차시장 업체별 판매대수 증가율(4월 vs 1~4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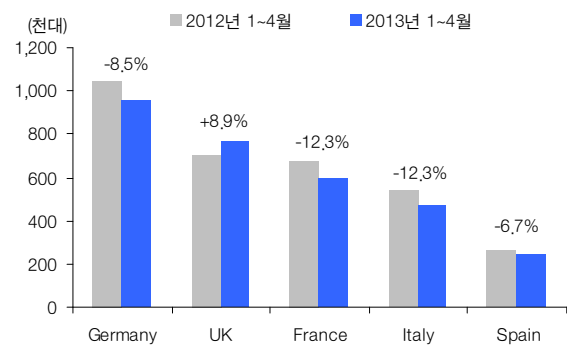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4〉 유럽 주요 5개국 4월 승용차판매(등록)대수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5〉 유럽 주요 5개국 1~4월 승용차판매(등록)대수



자료: ACEA, HMC투자증권

〈표1〉 유럽시장 업체별 판매대수

(대)

브랜드	'13년 4월	'12년 4월	YoY(%)	'13년 3월	MoM(%)	'13년 1-4월	'12년 1-4월	YoY(%)
VW	286,885	261,593	9.7%	319,662	-10.3%	1,037,411	1,076,061	-3.6%
PSA	118,915	132,104	-10.0%	138,173	-13.9%	464,167	539,845	-14.0%
Renault	94,348	89,818	5.0%	101,962	-7.5%	352,689	371,669	-5.1%
GM	81,870	85,370	-4.1%	112,918	-27.5%	325,248	362,498	-10.3%
Ford	78,211	78,711	-0.6%	110,243	-29.1%	303,012	360,503	-15.9%
Fiat	68,181	75,570	-9.8%	80,703	-15.5%	266,121	293,282	-9.3%
BMW	66,527	68,530	-2.9%	88,934	-25.2%	261,682	265,266	-1.4%
Daimler	62,920	56,677	11.0%	73,187	-14.0%	231,251	224,680	2.9%
Toyota	43,669	41,485	5.3%	60,022	-27.2%	179,342	206,100	-13.0%
현대차	36,572	35,922	1.8%	45,193	-19.1%	146,155	150,979	-3.2%
Nissan	31,662	29,671	6.7%	57,370	-44.8%	153,132	161,915	-5.4%
기아차	30,036	28,229	6.4%	36,592	-17.9%	112,795	108,203	4.2%
Volvo	19,291	20,235	-4.7%	22,770	-15.3%	73,200	82,958	-11.8%
Suzuki	12,731	12,731	0.0%	17,320	-26.5%	51,560	56,915	-9.4%
Mazda	10,833	9,303	16.4%	18,082	-40.1%	50,463	48,428	4.2%
Honda	10,689	10,163	5.2%	23,625	-54.8%	54,403	46,922	15.9%
Jaguar Land Rover	9,067	7,893	14.9%	23,998	-62.2%	52,468	46,155	13.7%
Mitsubishi	7,446	6,499	14.6%	8,572	-13.1%	26,586	30,555	-13.0%
기타	11,454	11,290	1.5%	7,563	51.5%	35,005	57,791	-39.4%
합계	1,081,307	1,061,794	1.8%	1,346,889	-19.7%	4,176,690	4,490,725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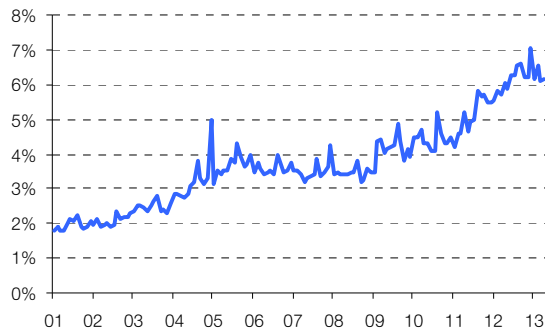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표2〉 유럽시장 업체별 점유율

브랜드	'13년 4월	'12년 4월	YoY(%)	'13년 3월	MoM(%)	'13년 1-4월	'12년 1-4월	YoY(%)
VW	26.5%	24.6%	+1.9%p	23.7%	+2.8%p	24.8%	24.0%	+0.9%p
PSA	11.0%	12.4%	-1.4%p	10.3%	+0.7%p	11.1%	12.0%	-0.9%p
Renault	8.7%	8.5%	+0.3%p	7.6%	+1.2%p	8.4%	8.3%	+0.2%p
GM	7.6%	8.0%	-0.5%p	8.4%	-0.8%p	7.8%	8.1%	-0.3%p
Ford	7.2%	7.4%	-0.2%p	8.2%	-1.0%p	7.3%	8.0%	-0.8%p
Fiat	6.3%	7.1%	-0.8%p	6.0%	+0.3%p	6.4%	6.5%	-0.2%p
BMW	6.2%	6.5%	-0.3%p	6.6%	-0.5%p	6.3%	5.9%	+0.4%p
Daimler	5.8%	5.3%	+0.5%p	5.4%	+0.4%p	5.5%	5.0%	+0.5%p
Toyota	4.0%	3.9%	+0.1%p	4.5%	-0.4%p	4.3%	4.6%	-0.3%p
현대차	3.4%	3.4%	-0.0%p	3.4%	+0.0%p	3.5%	3.4%	+0.1%p
Nissan	2.9%	2.8%	+0.1%p	4.3%	-1.3%p	3.7%	3.6%	+0.1%p
기아차	2.8%	2.7%	+0.1%p	2.7%	+0.1%p	2.7%	2.4%	+0.3%p
Volvo	1.8%	1.9%	-0.1%p	1.7%	+0.1%p	1.8%	1.8%	-0.1%p
Suzuki	1.2%	1.2%	-0.0%p	1.3%	-0.1%p	1.2%	1.3%	-0.0%p
Mazda	1.0%	0.9%	+0.1%p	1.3%	-0.3%p	1.2%	1.1%	+0.1%p
Honda	1.0%	1.0%	+0.0%p	1.8%	-0.8%p	1.3%	1.0%	+0.3%p
Jaguar Land Rover	0.8%	0.7%	+0.1%p	1.8%	-0.9%p	1.3%	1.0%	+0.2%p
Mitsubishi	0.7%	0.6%	+0.1%p	0.6%	+0.1%p	0.6%	0.7%	-0.0%p
기타	1.1%	1.1%	-0.0%p	0.6%	+0.5%p	0.8%	1.3%	-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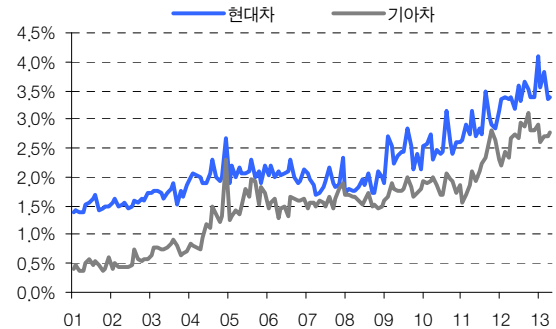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6〉 현대기아차 합산 유럽시장 월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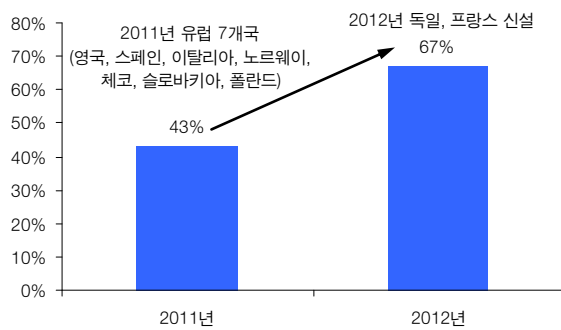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7〉 현대차, 기아차 유럽시장 월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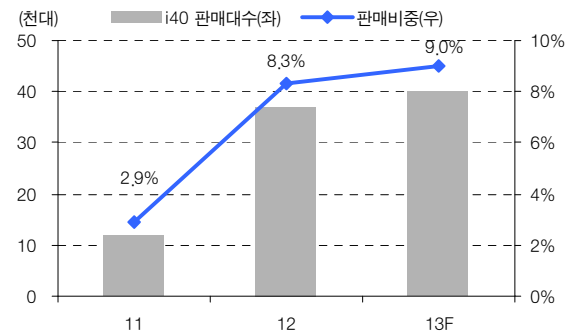
자료: ACEA, HMC투자증권

〈그림8〉 현대차 유럽 직영 판매법인 판매 비중



자료: 현대차, HMC투자증권

〈그림9〉 현대차 유럽시장 i40 판매대수 및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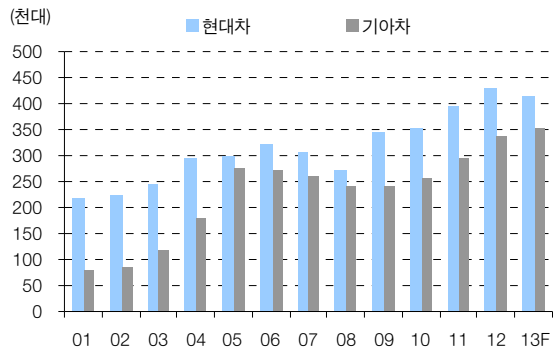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HMC투자증권

〈표3〉 유럽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업체	내용	완료시기
Renault	- 전체 인력의 14%에 해당하는 7,500명 감원	'16년
PSA	- 프랑스 오네 공장 폐쇄 - 1만 4천 명 감원	'15년
Opel	- 독일 보쿰 공장 폐쇄 - 3천 명 감원	'13년
Ford	- 벨기에, 영국 공장 폐쇄 - 폐쇄공장 생산물량은 터키, 스페인 공장에 재배치	'14년
Fiat	- 유럽 생산의 15% 수출 - 이탈리아 내 생산설비 변경	'15년~'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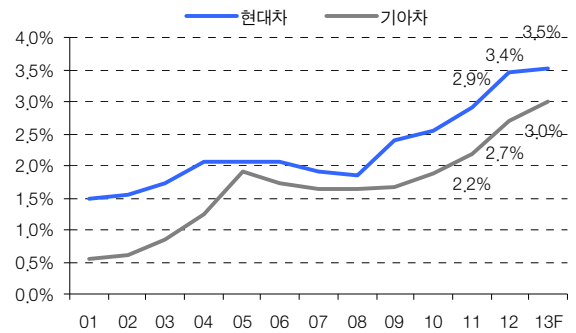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HMC투자증권

〈그림10〉 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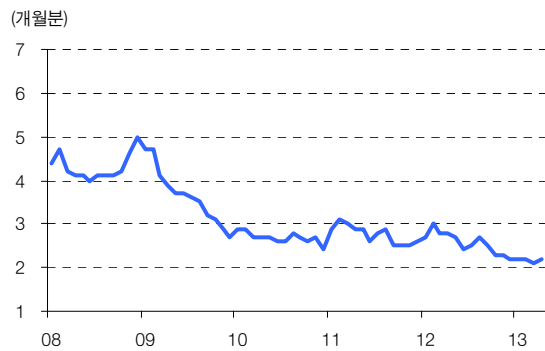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차, HMC투자증권

〈그림11〉 현대기아차 유럽시장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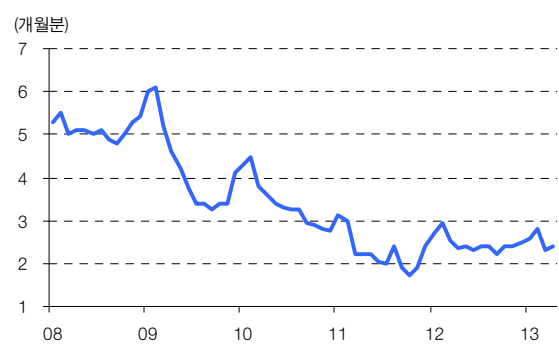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차, ACEA, HMC투자증권

〈그림12〉 현대차 유럽시장 재고



자료: 현대차, HMC투자증권

〈그림13〉 기아차 유럽시장 재고



자료: 기아차,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이명훈, 김형욱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투자의견 분류

- ▶ 업종 투자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